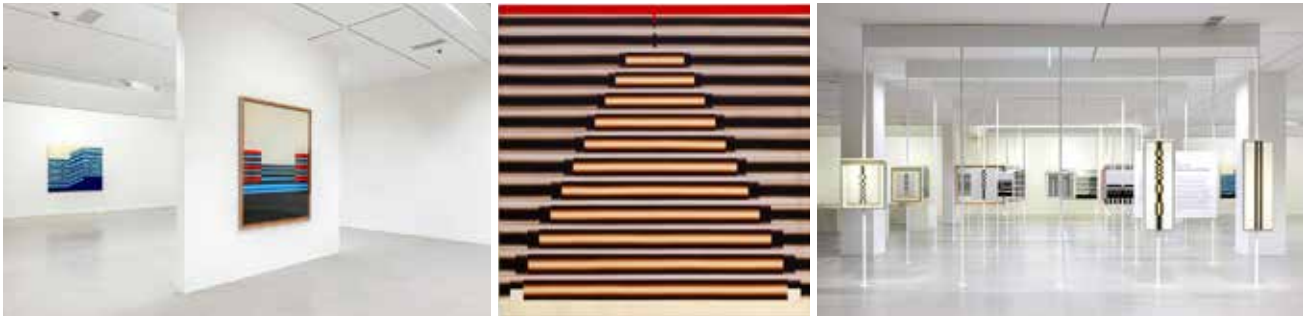




'이승조: 도열하는 기둥' 전시 전경



이승조, 핵 F-G-999, 1970, 캔버스에 유채, 162x162cm

한국 기하추상의 태동...‘파이프 화가’ 이승조

‘파이프 화가’로 불리는 이승조(1941~1990)는 원통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주해 착시효과를 만들어내는 ‘핵’(核Nucleus) 작업으로 한국 화단에서 보기 드문 엄격한 기하학적 추상의 전형을 이룩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이승조 30주기를 맞아 마련한 회고전 ‘이승조: 도열하는 기둥’은 작가가 전 생애에 걸쳐 매진했던 ‘핵’의 예술적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준다.

이승조는 당시 추상회화의 입상이 드물었던 보수적인 국전에서도 1968~1971년 4년 연속 수상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현상학이론, 개념 미술, 미니멀리즘 등 외부에서 유입된 현대미술 흐름에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1970년대 중반 이후 단색화와의 연계성을 가지면서도 스스로 개척한 ‘핵’의 고유성을 놓지 않았다.

이번 전시는 1968년부터 1990년까지 그가 마주했던 시대와의 관계 안에서 탄생한 회화와 창립동인으로 활동했던 전위적인 그룹 오리진(Origin)과 한국아방가르드협회(AG)에 관한 자료를 소개한다.

색 면과 색 띠의 나열 사이에서 원기둥 모티프가 처음 등장한 ‘핵 10’

(1968)과 제3회 오리진 회화전에 출품된 후 대중에게 소개된 적 없는 ‘핵 G-70’(1969)을 비롯해 회화 90여점, 자료 50여점이 나온다.

캔버스의 평면과 조형 간의 구조적인 논리를 추구한 이승조의 작품은 광학적이고 시각적인 옵아트(Op art) 특징이 강하다.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매끄럽고 기계적인 표현은 평붓 사용과 사포질이라는 반복적인 노동과정, 종이테이프를 이용한 작가의 독자적인 채색 방법으로 가능했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현재 단색화의 국제화가 있기까지 초석을 놓고 한국 기하추상의 태동을 주도한 이승조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 및 미술사적 위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일정(장소) 10월 4일까지(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관람료 사전예약제 관람 기간 무료
☎ 02-2188-6000

시대와 세상에 맞선 작가들

어느 시대나 당대를 지배하는 주류 세력과 다른 길을 가기는 험난하다. 그럼에도 억압과 횡포,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세상에 맞서는 이들이 있다. 평생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 그 노력과 가치가 재평가되기도 한다.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 ‘작업’은 비주류, 타자로 분류되는 소외와 시련 속에서도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개척한 작가들의 작품을 모았다. 구본주, 김명숙, 김승영, 김창열, 나혜석, 안창홍, 오귀원, 이응노, 이진우, 장욱진, 조성묵, 최상철, 홍순명, 황재형 등 14명의 회화, 조각, 설치 등 80여점을 소개한다. 저마다 다른 환경과 경험에서 마주한 세계와 치열하게 싸운, 그리고 싸우고 있는 작가들이다.

이응노(1904~1989)는 정치적 음모와 추방 등 국가폭력에 맞서 생명을 예찬했다.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백건우·윤정희 납북 미수 사건에 연루돼 ‘금기 작가’ 신세가 됐던 그는 1980년대 중반이 넘어서야 국내 화단에서 명예를 되찾았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서양화가이자 작가, 여권운동 선구자였던

나혜석(1896~1948)은 가부장제 사회와 싸웠다. 전통적인 여성관을 거부한 신여성이었던 그는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소외를 겪어야 했다.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사회로부터 비난받았던 그는 1999년에야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당대 미술계와 다른 독창적 방식의 작품들,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아낸 동시대 작품까지 다양한 작업을 볼 수 있다.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지금 열리는 전시에는 ‘팬더믹의 한가운데서 예술의 길을 묻다’라는 부제가 붙었다.



나혜석,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 63.5x50cm, 1928

전시일정(장소) 9월 20일까지(서울대학교미술관)
관람료 무료
☎ 02-880-9504



‘유미의 세포들’ 특별전

전시일정(장소) 내년 3월 14일까지(그라운드스이스 서촌)
관람료 주중 9천원, 주말 및 공휴일 1만2천원
☎ 1522-1796

Information)이라고 할만한 시시콜콜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먼저 이성세포, 사랑세포, 응금세포, 출출세포 등 다양한 세포 캐릭터가 소개된다. ‘유미의 세포들’에는 유미의 이성, 사랑, 성욕, 식욕 등을 조절하는 100여개 세포가 등장한다.

주인공 유미에 대한 정보도 물론 있다. 유미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 학창 시절 장래 희망, 좋아하는 로맨스 소설, 소울푸드, 처음 쓴 소설 제목, 가장 좋아하는 빵, 유미가 구웁고 헤어지고 혼자 부른 노래, 좋아하는 가수, 좌우명과 징크스 등등 유미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전시에는 유미와 세포 캐릭터를 활용한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풍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용 사진을 남길만한 포토존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도 곳곳에 배치됐다.

전시로 보는 ‘유미의 세포들’의 모든 것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난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문을 연 북한문화예술공간 그라운드스이스 서촌 개관전 ‘유미의 세포들’이다.

네이버웹툰에 2015년부터 연재 중인 이동건 작가의 ‘유미의 세포들’은 현재 누적 조회 수가 30억부에 달하는 인기작으로, 30대 평범한 직장인 유미의 일상과 연애 이야기를 그의 머릿속 세포들의 시각으로 표현한다.

전시는 그림, 영상, 음악, 설치,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등 ‘유미의 세포들’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공간 전체가 ‘유미의 세포들’의 주인공인 김유미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초심자들은 ‘유미의 세포들’의 기초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덕후’로 불리는 열혈 팬들은 ‘TMI’(Too Much



감독 하코타 유코
출연 가호, 심은경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7월 22일

어른과 아이, 밤과 아침 사이에 겪는 성장통 ‘블루 아워’

해 뜨기 전, 해지기 전 하늘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시간.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한 감정을 일으킨다. 곧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기 전, 아주 잠깐만 유지되는 그 짧은 시간은 누구든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겪어야 하는 과도기와도 같다.

일본 영화 ‘블루 아워’의 제목은 바로 이 시간을 가리킨다. 남편과의 어색한 사이, 다른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일과 사생활,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완벽하게 지친 CF 감독 스나다(가호 분)는 알고 지내던 자유로운 친구 기요우라(심은경)를 만난다. 그때 마침 걸려온 엄마의 전화에 기요우라는 자신의 중고차에 스나다를 태우고 스나다의 고향 이바라키현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스나다는 엄마, 아빠, 할머니 등을 만나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된다. 영화는 너무도 이른 새벽, 잠에서 깨어버린 아이였지만, 자신도 모르게 어른이 돼 버린 스나다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어른이 됐지만 어린 시절의 감정과 상처, 그리고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스나다의 상태는 마치 어른과 아이, 낮과 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블루 아워와도 같다.

영화에는 뚜렷한 갈등도 없고 스나다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도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때문에 영화 자체가 미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영화는 큰 사건을 겪지 않은, 누구에게나 있었을 법한 감정과 기억을 꼬집어내면서 관객이 스나다의 성장통에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의 범위를 넓힌다.

포스터 등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본 영화 특유의 느리고 잔잔한 전개가 이어지지만, 유쾌한 청춘 성장물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심은경이 연기한 기요우라는 영화의 분위기를 청

량하게 만드는 일등 공신이다. 심은경은 완벽에 가까운 일본어 연기로, 영화에 밝은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블루 아워’는 일본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심은경이 출연한 영화로서는 ‘신문기자’(2019)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개봉하는 작품이다. 다만 촬영 시기로는 ‘블루 아워’가 앞선다. 심은경은 ‘신문기자’에서 맡았던 역할과는 다른, 자연스러운 연기를 펼친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영화에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 대사의 상당 부분은 애드리프로 이뤄졌다고 한다.

연출을 맡은 하코타 유코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스나다와 마찬가지로 CF 감독이었던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겼다. CF 감독다운 감각적인 연출이 눈에 띈다. 특히 영화 시작과 끝의 자동차 드라이브 장면은 뮤직비디오 한 편을 보는 것 같다.



소년 아메드

칸 영화제 ‘단골’인 벨기에 출신 다르덴 감독의 최근작이다. 평범한 무슬림 소년이었지만, 종교 지도자 이맘에게 세뇌당한 후 어릴 적부터 자신을 가르친 선생님을 해칠 계획을 세우는 아메드의 이야기를 그린다. 다르덴 형제는 주특기인 리얼리즘에 따라 잘못된 신념을 가졌으나 그 신념이 흔들리는 사건들을 겪는 소년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해 그려낸다. 제72회 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다.

감독 장 피에르 다르덴,뤼크 다르덴
출연 이디르 벤 아디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7월 30일



애니멀 크래커

일상이 지루한 오언은 어느 날 삼촌의 유품으로 남겨진 신비한 과자 상자를 발견한다. 먹으면 동물로 변할 수 있는 마법의 과자 상자라는 것을 알게 된 오언의 가족은 평생 꿈이었던 서커스단을 만들기로 한다. 그러나 호레이쇼라는 악당이 호시탐탐 마법 과자를 노리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에밀리 블런트, 존 크래신스키, 이언 맥켈런, 실베스터 스탤론 등 호화 목소리 캐스팅을 자랑한다.

감독 토니 뱅크로프트, 스콧 크리스티안 사바
출연 에밀리 블런트, 존 크래신스키, 이언 맥켈런
등급 전체 관람가
개봉 8월 5일



강철비2:정상회담

2017년 개봉한 ‘강철비’의 속편으로, 웹툰 ‘스틸레인’이 원작이다. 남·북·미 정상회담 중 북의 쿠데타로 세 나라 정상이 납치된 후 벌어지는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을 그린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북한 최고지도자 위원장, 미국 대통령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원산에 모인다. 북미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핵무기 포기와 평화체제 수립에 반발하는 북한 호위총국장의 쿠데타가 발생한다. 세 정상이 북한 핵잠수함에 납치되고, 좁디좁은 함장실에서 진정한 정상회담이 벌어진다.

감독 양우석
출연 정우성, 박도원, 유연석
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7월 29일



세인트 주디

미국의 이민 전문 변호사 주디 우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본국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체포돼 미국에 망명을 요청한 아프가니스탄 여성 아세파 아슈와리의 변호를 맡게 된 주디 우드, 그는 그 과정에서 아세파가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즉시 살해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미국의 망명법에 따르면 아세파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위기에 처한다. 주디는 이 망명법을 뒤집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미션 임파서블’에 출연해 국내 관객에게도 익숙한 미셸 모나한이 주디 우드를 연기했다.

감독 손 해니시
출연 미셸 모나한, 림 루바니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7월 29일



2020 팝 상반기 결산 베스트 앨범 ①

R&B 슈퍼스타 위켄드 정규 4집 '애프터 아워즈'... '빌보드 200' 점령·최고 평점까지

에티오피아계 캐나다인 위켄드(The Weekend)는 R&B(리듬 앤드 블루스) 신의 젊은 슈퍼스타다. 지금까지 낸 모든 앨범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정규 4집 '애프터 아워즈'(After Hours) 역시 44만4천 장 상당의 판매고를 올리며 해당 차트에서 1위로 데뷔했다. 이후 4주 연속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다. 이후에도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무려 16주간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타이틀곡 중 하나인 '블라인딩 라이츠'(Blinding Lights) 역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위로 데뷔했다.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이 '핫 100' 차트 안에 성공하기도 했다. '블라인딩 라이츠'는 미국 캐나다 차트를 비롯해 33개국 주요 차트에서도 정상을 기록했다.

이 곡을 포함해 총 14곡이 담긴 '애프터 아워즈'는 평단에서도 후한 평가를 받았다. 메타크리틱에서는 80점을 부여했고, 버라이어티는 무려 96점을 줬다. 91점을 수여한 COS(Consequence of Sound)의 한 필진은 "그는 진화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재발명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팬들을 대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다.

이 앨범은 위켄드가 이전에 다수 작품에서 함께 작업한 바 있는 막스 마틴, 다헬라, 메트로 부민 등 유명 프로듀서들이 공동으로 제작했다. 피쳐링 없이 오직 위켄드 목소리만이 실렸다는 점도 눈에 띈다. 불안과 방황을 담은 사운드와 사랑의 아픔을 지우려는 가사가 신보에 채워졌다.

돌아온 영국 디바 두아 리파가 말하는 향수... '퓨처 노스탤지어'

지난해 그래미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받은 차세대 디바 두아 리파의 새 앨범은 미래 세대가 두고두고 들으며 그리워할 앨범이 될 것 같다. 이런 바람을 담아 두아 리파는 앨범 이름을 '퓨처 노스탤지어'(Future Nostalgia)로 지었다.

이 앨범은 2017년 발매한 데뷔 앨범 '두아 리파' 이후 약 3년 만의 새 앨범이다. 앞서 싱글 형태로 공개된 타이틀곡 '돈트 스타트 나우'(Don't Start Now), '피지컬'(Physical) 등을 비롯해 11트랙을 수록해 지난 3월 발표했다.

'돈트 스타트 나우'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2위를 기록하며 두아 리파 노래 중 최고 순위에 올랐다. '피지컬'은 지난 18일 국내 걸그룹 마마무 화사가 피쳐링에 참여한 버전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두아 리파

[EPA=연합뉴스]

리파는 '퓨처 노스탤지어' 수록곡 전반에 80~90년대 팝 느낌을 가득 담았다. 그는 어느 날 산책하며 90년대 그룹 아웃캐스트(OutKast)와 노 다ウト(No Doubt) 음악을 듣던 중 "어릴 적 좋았던 추억과 영감을 그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새롭게 현대적으로 새 앨범에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며 신보를 복고풍 음악으로 채운 이유를 설명했다.

'퓨처 노스탤지어'는 위켄드의 '애프터 아워즈'와 함께 다음 그래미상 최고 앨범상 후보로 자주 거론되는 앨범 중 하나다. 메타크리틱에서 89점을 받았고, 롤링스톤에서는 5점 만점에 4점을 받았다. 롤링스톤은 "퓨처 노스탤지어는 2020년 디스코를 위한 장소를 찾으려는 숨이 막히도록 흥미로우며 응집력 있고 야심찬 시도"라고 극찬했다.

연이은 평점 '만점 행진'...

피오나 애플 8년만에 정규앨범 '페치 더 볼트 커터스'



피오나 애플 음반 커버

미국 싱어송라이터 피오나 애플이 8년 만에 발표한 정규 앨범으로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 4월 발매된 그의 5집 '페치 더 볼트 커터스'(Fetch The Bolt Cutters)는 미국 음악비평 웹진 피치포크에서 평점 10점 만점을 받았다.

피치포크가 10점 만점을 부여한 앨범은 래퍼 카네이 웨스트의 2010년작 '마이 뷰티풀 다크 트위스티드 판타지'(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 이후 10년 만이다.

피치포크는 "피오나 애플의 다섯 번째 앨범은 속박되어 있지 않으며, 일상의 교향곡으로, 단호한 결작(마스터피스)"이라며 "그 어떤 음악도 이 앨범과 같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앨범은 메타크리틱에서도 100점을 기록했다. 타임스는 "이번 앨범은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깊고 창작자의 비전에 충실하며, 층은 벗겨내고 핵심은 드러내고자 하는 음반"이라고 평했다. '페치 더 볼트 커터스'는 다양한 생활 소음이 녹아든 날 것의 사운드가 카타르시스를 안긴다. 수록곡 13곡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베니스 해변에 있는 그의 집에서 홈레코딩 방식으로 제작됐다. 롱 테이크 등 실험적인 시도를 바탕으로 따돌림이나 성폭행 등 애플의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한다.

앨범 타이틀은 영국의 수사 드라마 '더 폴'(The Fall)에서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으로 출연한 배우 질리언 앤더슨의 대사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달 '문화가신책' 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든 공연이 취소된 관계로 '팝 상반기 결산 - 베스트 앨범'으로 대신합니다.



[쇼노트제공]



꿈 많던 소년은 자라서 무엇이 될까... 뮤지컬 ‘제이미’

어린 시절,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기 마련이다. 아이들은 빨리 커서 멋있는 어른이 되길 바라지만, 정작 어른이 된 사람들은 안다. 어른이 되어도 별것 없이 흘러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뮤지컬 ‘제이미’는 “시간은 왜 이리 더디게만 흘러”라고 말하는 제이미와 ‘가슴에 굳은 살만 자라나던 시절을 보낸’ 엄마 마거릿이 만들어 가는 이야기다. 여기에 한창 꿈 많은 소년과 이제는 인생의 비밀을 알아버린 어른들의 이야기가 씨줄과 날줄처럼 엮인다.

수업 시간에 교실 뒷좌석에서 공부는 뒷전이고, 공상만 하는 제이미. 이제 졸업이 눈앞이지만 진로는 정해지진 않았다. 적성검사를 하면 광부나 포크레인 기사가 나오지만, 결과가 마뜩잖다. 사실 하고 싶은 건 있지만, 하고자 할 용기는 없다.

어린 시절 ‘라이크 어 버진’(Like a virgin)에 맞춰 마돈나의 안무를 따라 했던 제이미는 화려한 무대에 서는 드랙퀸(여장 남성)이 되고 싶어 한다. 남들의 시선 탓에 우물쭈물하지만, 엄마는 아들의 꿈을 응원한다.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말고 트럼프처럼 해”라고 말해 주는 엄마 친구도 있다.

주변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드랙퀸 샵을 찾아가 제이미는 그곳에서 한때 ‘로코 샤넬’이라는 이름으로 업계를 평정했던 전설의 드랙퀸 휴고를 만난다.

뮤지컬은 오프닝부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첫 곡 ‘앤 유 돈 이븐 노우 잇’(And You don't even know it)의 경쾌한 사운드, 합이 딱딱 맞는 군무, 적절하게 뒤섞인 남녀 코러스 합창은 눈길과 귓가를 자극한다.

귀에 꽂히는 넘버(노래)도 있고, 춤도 역동적이지만 무엇보다 ‘제이미’의 가장 큰 장점은 실화에 바탕을 둔 탄탄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은 작가의 애정이 깊이 배어 있는 캐릭터들로 구현된다.

뉴욕 브로드웨이와 함께 세계 뮤지컬계를 양분하는 런던 웨스트엔드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이 작품은 2017년 영국에서 초연됐다. 이번 공연은 아시아 초연이며 연출, 안무, 무대, 소품 등이 오리지널 작품과 동일한 라이선스 공연이다.

제이미 역에 조권, 신주협, MJ(아스트로), 렌(뉴이스트)이 캐스팅됐다. 마거릿 역은 최정원과 김선영이, 휴고 역은 윤희석과 최호중이 각각 연기한다.

공연일정(장소) 9월 11일까지(LG아트센터)
관람료 6만~14만원
☎ 02-2005-0114

뮤지컬이라는 꿈...종합선물세트 같은 ‘브로드웨이 42번가’

1930년대는 불안의 시대였다. 유럽에선 파시즘이 준동했고, 미국은 대공황 여파로 실업이 속출했다. 현실이 힘들수록 사람들은 꿈을 찾았다. 춤과 노래로 가득한, 희망적인 내용을 담은 뮤지컬은 여러 장르를 빨아들이며 그 시대를 대표하는 대중예술 장르로 우뚝 섰다. 할리우드는 뮤지컬 영화를 만드느라 분주했고, 재즈계에서는 너도, 나도 뮤지컬 넘버(노래)를 연주했다. 빅밴드들이 연주하는 춤곡, 스윙이 재즈계를 장악하던 시기였다.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 중인 ‘브로드웨이 42번가’는 이 시기에 만들어진 동명 영화(1933)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무명 배우 페기가 브로드웨이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았다. 볼거리가 풍부하고, 노래도 좋지만, 이 뮤지컬의 장점은 이 모든 볼거리와 신명 나는 음악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모두 페기의 성장, 참사랑을 찾는 도로서, 불황을 극복해 나가는 뮤지컬 극단의 이야기로 점점 수렴해 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뮤지컬에 대한 꿈과 희망, 그리고 애정이 작품 면면에 깊이 배어있다.

공연일정(장소) 8월 23일까지(샤롯데씨어터)
관람료 6만~14만원
☎ 1588-5212



신나는 여름방학 가족과 함께 보는 뮤지컬 ‘칸터빌의 유령’

오스카 와일드의 동명 원작을 바탕으로 한 국내 창작 뮤지컬. 작가 오미영이 극작했고, 유자홍이 각색했다. 조선형이 음악 작업에 참여해 어린이 관객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을 만들었다. 미국인 가족이 영국의 고택에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칸터빌 저택의 터줏대감 유령. 하지만 미국에서 온 오티스 가족이 이 집에 들어오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진다. 오티스 가족이 자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이한 공존이 지속하던 어느 날, 오티스의 딸 버지니아는 이승을 떠도는 유령이 영원히 잠들려면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뮤지컬, 올해의 레파토리’ 선정작이다.

공연일정(장소) 8월 16일까지(강동아트센터)
관람료 3만원
☎ 02-440-0500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 개막작 ‘천생연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탓에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이 8월 7일 개막한다. 6월 공연이 내년으로 순연되는 등 차질을 빚었으나 9월까지 4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르게 됐다.

개막작은 누오바오페라단의 ‘천생연분’이다. 오영진의 희곡 ‘맹진사댁 경사’를 원작으로 양반 김 판서댁의 서향과 갑부 맹 진사의 아들 몽완 그리고 이들의 하인인 이쁜이와 서동의 엇갈리는 사랑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명망 높은 김 판서와 사돈을 맺어 신분 상승의 한을 풀고자 하는 맹 진사는 청나라에 유학 보낸 외아들 몽완을 장가보내기 위해 불러들인다. 김 판서는 조선 최고의 가문이지만 손녀에게 곤궁한 삶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조선 최고의 갑부 맹 진사 아들과 혼인을 허락한다.

몽완은 조선에선 아무리 돈이 많아 해도 신분 차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한다. 김 판서의 손녀 서향은 항상 바다 너머 세상을 동경한다.

이 둘은 상대방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혼인할 수 없다며 각자의 동무이자 하인인 서동과 이쁜이를 내세워 계락을 세운다.

‘천생연분’은 우리 민족 특유의 유머, 해학과 풍자가 녹아있는 작품이다. 2006년 독일에서 초연된 후,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홍콩 등에도 소개됐다. 이번 무대에서 한국적 정취에 서양의 이국적인 감각을 덧입혔다. 익숙한 이야기지만, 서양 오페라로 우리 이야기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참신함도 준다.

서향 역은 이영숙·박명숙·이다미가, 몽완 역은 이인학·이승묵·엄성화가 맡는다.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위너오페라합창단, 아름불휘어린이합창단이 함께 한다.

공연일정(장소) 8월 7일(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1만~15만원
☎ 02-580-1300

멘델스존이 받은 영감…교향곡 4번 이탈리아

괴테는 일생에 걸쳐 모두 3차례에 걸쳐 이탈리아로 떠났다. 그가 쓴 ‘이탈리아 기행’에는 이탈리아의 당대 모습이 유려한 필치로 담겨있다. 슬럼프에 빠져있던 멘델스존을 본 괴테는 이탈리아로의 여행을 권유했다. 멘델스존은 괴테가 그랬듯 이탈리아에서 커다란 영감을 받았다. 멘델스존이 직접 붙인 ‘이탈리아’라는 제목 때문에 표제음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작곡가 자신도 ‘이탈리아의 예술과 풍광에서 받은 인상, 그리고 사람들의 활력을 담아냈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멘델스존 교향곡 중 가장 고전적인 작품이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오스모 벤스케 상임지휘자가 서울시향을 이끌고 또 한 번 무대에 선다. 이 곡에 앞서 주목할만한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가 본 월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을 협연한다.

공연일정(장소) 8월 27일(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1만~7만원
☎ 1588-1210



오스모 벤스케



공연일정(장소)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1만~4만원
☎ 02-580-1300

서울시립교향악단

골라보는 재미 2020 교향악축제

국내의 대표적 클래식 음악 축제인 ‘2020 교향악 축제’가 8월 10일까지 열린다.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코리아심포니를 비롯해 전주·수원·인천·원주 시향 등 모두 14개 교향악단이 참여한다.

마시모 자네티가 이끄는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멘델스존의 교향곡 ‘이탈리아’를 연주한다. 이달 27일 서울시향도 같은 곡을 연주해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 최예은은 베토벤 바이올린협주곡을 협연한다. 올해 교향악 축제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의 협연이 두드러진다. 서울대 백주영 교수를 비롯해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 우승자 조진주,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양인모, 차이콥스키 3위 김동현 등 6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협연자로 나선다.



폴 킨드스테드 지음, 정향 옮김/ 글항아리 펴냄/
324쪽/ 1만8천원

식탁 위 치즈 한 조각에는 수천 년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다. 종류가 뭐가 됐건, 전통 치즈는 저마다 지금의 모습과 맛, 향, 제조법을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친 매혹의 역사를 감추고 있다. 저자는 세계사를 관통하며 무수한 치즈와 치즈 장인이 인류 문명사에 남긴 자취를 추적하고, 치즈 과학과 기술의 기본 원리를 탐구한다. 다양한 치즈가 어떻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탄생하고 가공되고 유통되어왔는지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세밀하게 기술한다.

음식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먹고 마시는 행위는 생존과 직결된다. 인류는 자신의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효율적으로 즐기는 방법을 연구해왔고, 이런 노력은 그 지역이나 나라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세력을 키우는 기반이 됐다. 이들 음식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분쟁을 넘어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 문명이 탄생하고 융성하며 쇠락하는 과정에 음식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 따라서 음식의 역사를 빼놓고 세계사를 제대로 논하기 어렵다. 소설가이자 역사서 집필자인 저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즐기는 설탕, 소금, 후추, 밀, 커피, 초콜릿 등 6가지 가루들의 이면에 숨겨진 세계 역사를 촘촘히 들춰본다. 그리고 이 가루들이 세계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살핀다.



도현신 지음/ 이다복스 펴냄/ 256쪽/
1만6천원



우영·부추·돌김 지음/
900KM 펴냄/ 268쪽/
1만3천500원

대학 선후배 사이인 부추(여)와 우영(여), 길 위에서 만나 부부가 된 돌김(남)과 부추. 이들은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공동영의로 땅을 사 자신들만의 집을 지었다. 한살림을 차리기까지 각자 5번, 13번, 30번 이사한 이들은 지긋지긋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셋이 힘을 합치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출공동체'가 되기로 한다. 그리고 비 내리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강화도 땅을 덜컥 산다. 설계부터 착공, 각종 인허가 절차 등 초보 건축주로서 겪어야 할 험난한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들보다 몇 배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서도 주거 지원사업에서는 배제됐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차곡차곡 문제를 해결해 지금은 함께 지은 집을 책방 겸 북스테이로 운영하며 강아지 2마리, 동네 고양이 5마리와 함께 알콩달콩 살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가 기획하고 쓰는 자신들의 이야기 '요즘문고'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왜 유독 여자들에게 여름철 사무실의 에어컨 바람이 춥게 느껴질까. 일부 국가에서 '성 중립' 화장실을 만든 이후 화장실 앞의 여자들이 선 줄이 더 길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여자가 죽거나 다칠 확률이 더 높을까. 영국의 언론인이자 여성운동가인 저자는 이 세상에서 여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가 여자에 관한 데이터의 공백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경우 여자는 데이터 작성 때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여자들은 불편하고 가난하며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받는다. 기술과 노동, 의료 등 16가지 영역에 걸쳐 여성에 관한 데이터 공백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차별의 단면을 면밀하게 보여준다.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 지음, 황가한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464쪽/ 1만8천500원



미치 앨봄 지음, 공경희 옮김/ 살림 펴냄/
252쪽/ 1만3천800원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미지의 세계다.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기에 사후 세계는 알 수 없는 암흑의 세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베스트셀러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작가 미치 앨봄은 새로운 상상력으로 죽음이 끝이거나 비극이 아니라 새롭고 설레는 시작이라고 속삭인다. 주인공인 간호사 애니는 힘겨운 삶을 이어가다 인생의 반러자를 만난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비극적인 사고가 찾아오고 천국에서 눈을 뜬다. 앨봄은 애니의 슬프고도 행복한 사후세계 여행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마지막이 찾아와도 인생은 해피엔딩'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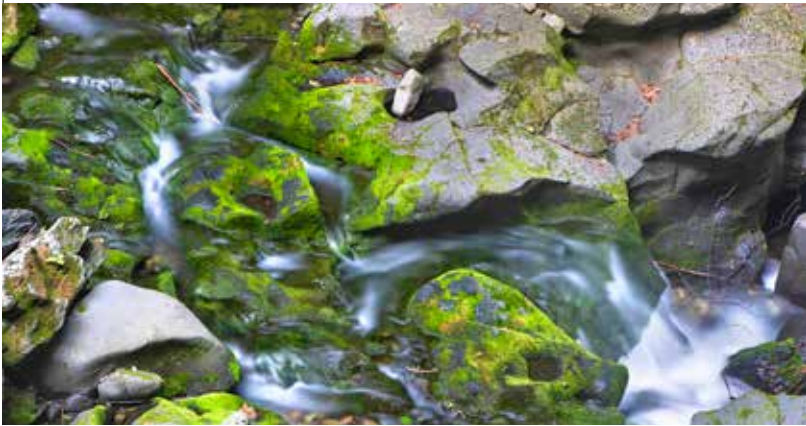


존 마스 지음, 강동혁 옮김/
다산책방 펴냄/ 524쪽/ 1만6천원

완벽한 영혼의 짝을 찾는 건 모두의 꿈이다. 하지만 겉으로 훌륭해 보여도 사실 상대가 잘 맞는 사람인지 알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뿐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모든 면에서 어울리는 운명의 반러자를 만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될까? 세계적인 인기 작가로 급부상한 존 마스의 장편소설 '더 원'은 이런 상상에서 출발한다. 머리카락 한 올로 완벽한 파트너를 찾아주는 사업이 성행하는 가까운 미래를 그린 공상과학소설이다. 하지만 사실 소설은 과학기술로 이 세상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한다. 세상은 '복잡계'이고 인간은 그런 세상보다도 더욱 복잡하고 다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탄강 1천165㎢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글 우영식·양지웅 기자



‘자연이 빛은 지질자원의 보고(寶庫)’인 한탄강 일대가 국내 네 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인증 받은 곳은 한탄강이 흐르는 경기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 철원군 유역 398.72㎢ 등 모두 1천165.61㎢다. 여의도 면적(2.9㎢)의 400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화적연, 비둘기낭 폭포, 아우라지 베개용암, 재인폭포, 고석정, 철원 용암지대 등 26곳이 지질 문화 명소로 등재됐다.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정하는 구역이다. 세계유산·생물권 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현재 40개 국가 140곳의 세계지질공원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청송·무등산 등 3곳이 선정돼 있다.

한탄강 일대는 고생대부터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 등 다양한 암석이 있고 50만~10만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과 침식작용에 의한 주상절리 등으로 경관이 뛰어나다. 특히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30~50m 높이의 U자형 협곡이 형성돼 지질학적 가치가 크고 용암지대와 주상절리 협곡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지질학적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전국리 선사유적지, 고구려 당포성, 평화전망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문화적 명소가 많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80년 전으로의 시간여행’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 투어

글 배연호 기자

강원도 태백시 철암역 앞에 있는 ‘철암역두 선탄시설’은 국내 최초의 선탄시설이다. 석탄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괴탄(덩어리 석탄)과 분탄(작은 입자의 석탄)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곳으로, 지금도 가동 중이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 건설된 이 시설은 역사적 산업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2002년 등록문화재 21호로 지정됐다. 최근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철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철암살리기범발전추진위원회가 일반인도 철암역두 선탄시설을 돌아볼 수 있는 투어 상품을 개발했다.

투어는 광부들의 작업화·안전모 보관소에서 시작해 작업화 세척장, 방한 갱도로 이어진다. 입갱 전후 광부들의 이동 통로인 방한 갱도는 겨울철에는 추위, 여름철에는 비를 막아주는 시설로, 현재 사용 중인 지하 막장 갱도와 유사한 모습이다.

장성광업소의 지하갱도 총 길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477km의 70%인 327km에 달한다. 일반인은 지하 막장으로 광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백산 갱구 입구까지만 볼 수 있다.

백산 갱구에서 장성광업소 직원과 가족에게 연탄을 공급하던 연탄공장을 지나 철암역 철로 옆을 따라 걷다 보면 멀리 철암역두 선탄시설이 한눈에 들어온다. 회색 시멘트 건물과 검은색 석탄 더미가 빛은 철암역두 선탄시설은 80년 역



사를 간직한 한장의 흑백사진이다. 철암역두 선탄시설 투어는 토요일 주말 하루 최대 4회까지 회당 15명씩(일 최대 60명) 운영된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철암역두 선탄시설 투어는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여행이자, 광부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감성 가득한 야날로그 여행”이라고 말했다.

회귀하는 연어를 하늘서 본다…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개장

글 손대성 기자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가 7월 1일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울진군은 2018년 4월부터 152억원을 들여 근남면 엑스포공원과 해맞이공원 사이에 총길이 715m인 케이블카를 설치했다. 케이블카는 최대 높이 55m로 중간지주 2개, 가이드지주 2개, 일반 케빈 10대, 투명 바닥 케빈 5대로 구성됐다. 왕피천 하구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회귀하는 연어와 각종 새를 관찰할 수 있다.

주변에는 엑스포공원과 인근 망양정, 해맞이공원 등이 있다.

전찬걸 군수는 “케이블카 운영을 시작하면 연간 최대 5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해양과학관과 죽변 해안스카이라일 등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울진이 체류형 관광도시로 한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꽃무늬 영롱한 희귀 고려 ‘나전합’일본서 돌아왔다

글 임동근 기자

온전한 형태로는 전 세계에 3점밖에 없는 고려 시대 나전합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고려 시대 예술을 대표하는 나전칠기 유물인 ‘나전국화영쿨무늬합’을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나전합은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길이 10cm 정도에 무게가 50g으로 작고 가볍지만 고려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아주 작게 오린 나전을 뚜껑과 몸체에 빼곡하게 배치해 국화와 영쿨무늬를 유려하게 표현했다. 뚜

껑 중앙에 있는 큰 꽃무늬와 국화 꽃술에는 고려 나전칠기를 대표하는 특징인 대모복채법(玳瑁伏彩法)이 사용됐고, 뚜껑 테두리는 연주문(連珠文)으로 촘촘히 장식됐다.

대모복채법은 바다거북의 등껍질인 대모를 얇게 갈아 투명하게 만든 판의 안쪽에 안료를 칠해 비쳐 보이게 하는 기법이며, 연주문은 점이나 작은 원을 구슬을 꿰듯 연결해 만든 문양을 말한다. 또 금속 선으로 영쿨 줄기를 표현하고, 두 줄을 꼬아 외곽선을 장식하는 등 전체적으로 다양한 문양이 조화롭고 품격 있게 어우러져 있다.

이 나전합은 커다란 원형 합(모자합·母子盒) 속에 들어 있던 5개의 작은 합(자합·子盒) 중 하나다. 가운데 자합을 다른 자합 4개가 둘러싼 모습인데, 환수한 나전합은 바깥 4개 중 하나로 추정된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현재 고려 나전칠기는 전 세계에 20여 점만 남아 있는데, 대부분 미국과 일본의 주요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에 온전한 고려 나전칠기가 단 2점 있었는데, 이번에 나전합 한 점이 추가되며 총 3점을 소장하게 됐다.

이번에 돌아온 나전합은 문화재청 위임을 받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일본에 있는 개인 소장자로부터 지난해 12월 구매했다. 일본으로 건너간 시기나 용도는 알려지지 않았고, 오래전부터 일본 내에서 전해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문화재청 제공]